

天安、稷山 慰禮城考

洪 再 善

1. 序 論

百濟는 西紀 五世紀 후반 高句麗의 남침으로 因하여 이때까지 國家의 中樞기능을 담당하던 漢江 流域을 상실하고 熊津이 새 首都로 登場함으로 百濟의 錦江時代를 열고 있다.

따라서 熊津 遷都는 百濟의 歷史를 前, 後期로 區分짓는 重要な 起點이 되고 있으며, 또한 錦江文化時代라 말할 수 있는 文化의 開花期를 마련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百濟의 熊津都邑은 高句麗의 南下에 따르는 불가피한 국가보존책으로 이미 학계에 별다른 異論없이 受用되고 있다.

筆者가 關心을 갖고 있는 部分은 高句麗의 百濟 首都 侵攻후 熊津으로 遷都까지의 過程에서 몇가지의 의문점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一、百濟가 戰爭 상황 아래라고 하지만 遷都以前에 公州에 對한 關心의 表明이 史料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熊津을 國家의 예비수도, 重要政策要地가 아님을 말한다는 것과 百濟 建國以來 몇번의 首都를 옮기는 일반적 사항이 비교적 短거리임에 비하여 移動거리가 너무 멀다는 사실과, 公州가 地理的으로 國家 首都로서의 여건에 적합치 못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二、公州와 서울의 거의 중간 지점인 天原郡 稷山面에 慰禮城이 現存하고 있으며 이 城址에 百濟의 對 高句麗 關係의 傳說과 朝鮮時代 諸地理書에 百濟 建國에 대한 내용을 傳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稷山 百濟

建國說이 本慰禮城을 中心으로 展開하고 있어 과연 이 城址가 都城으로 可能할 수 있겠는가 하는 點이다.

몇차례의 답사와 不足한 史料를 기초로 하여 稷山 慰禮城의 性格을 規明하고자 하였으나 努力의 不足과 우둔한 머리가 明快한 結論에 이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諸賢의 판단을 바랄 뿐이다. 아울러 本稿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史料의 考察

本章의 史料에 對한 考察은 稷山 慰禮城의 性格 規明에 있는만큼 당시 百濟를 中心으로 한 高句麗, 新羅 및 倭, 그리고 中國의 南北朝와의 關係等 東北 Asia 諸國間의 勢力均衡의 問題를 論外하고 단순히 高句麗의 百濟 침공과 漢城 함락, 그리고 百濟의 熊津 遷都를 中心으로 한 考察에 限定하고자 한다.

高句麗의 南下와 百濟 遷都에 關聯된 史料는 三國史記①의 百濟本紀, 高句麗本紀 및 新羅本紀와 日本書紀②에 보이고 있는데 戰爭의 當事國인 百濟와 高句麗 本紀를 中心으로 諸書를 綜合 整理해 보면

「蓋鹵王二十一年(四七五)秋九月에 高句麗王 巨璉이(長壽王) 군사 三만을 거느리고 침입하여 서울 漢城을 포위하였다. 王은 城門을 굳게 닫고 나와 싸우지 않으니 高句麗軍은 四道로 나누어 협공하고 바람을 利用하여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우므로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혹은 항복하려는 자가 있었다. 王은 궁색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數十騎를 거느리고 城門을 나와 西쪽으로 달아나다 高句麗군사에게 추격당해 살해되었다. 高句麗의 強攻이 있자 蓋鹵王은 王子 文周에게 新羅에 救援을 요청하여 군사 一만을 얻어 돌아왔으나 高구려 군사는 퇴각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王은 돌아 가셨으므로 即位하였다.」

「이해 一〇월에 서울을 떠나 熊津에 遷都하였다.」

이 記事中 新羅本紀의 내용은 秋 九月이 아닌 秋 七月로 記錄되고 있어 文周王의 對新羅 援兵의 要請時期가 二個月이나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對하여 文周王이 高句麗 侵入 以前에 이미 新羅에 가 있던 것으로 보는 見解와 다른 하나는 新羅本紀의 誤記로 보는 見解가 있다. 이것은 新羅本紀가 高句麗의 百濟 侵略과 文周의 救兵 및 蓋鹵王의 匪해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傳하고 있음을 보아 내용상으로 高句麗의 南下以後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戰爭 利害의 당사국인 百濟와 高句麗의 記錄을 中心으로 時間의 問題를 해석함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新羅 本紀의 記錄은 時差나 誤記로 봄이 順理인 것이다. 前記 高句麗의 百濟 侵略 이후 新羅 援兵 그리고 濟羅 聯合의 軍事, 文周王의 記錄을 좀더 살펴보면, 몇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고구려의 百濟 攻擊」 「文周王의 新羅 救兵 一萬」 「高句麗 軍의 퇴각」 「文周王의 漢山城 確認」 「文周王의 即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은 高句麗의 南城이 漢江邊에 이르고 百濟 都城이 위기에 놓이자 百濟와 新羅의 聯合軍이 結成되어 漢江을 中心으로 戰線이 形成되어 攻防이 있었음을 證정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다.

三國史記 高句麗 本記에서도 高句麗 軍의 復歸를 말하고 있어 高句麗 軍의 復歸의 主要原因이 新羅의 救援兵 때문인지 또는 高句麗 自體의 어떤 문제인지에 關해서는 確認할 길이 없지만 記錄 內容 自體로 보아서 前者 即 百濟, 新羅의 聯合軍의 反擊으로 因하여 撤兵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이것은 百濟가 高句麗의 侵入과 抗戰 過程에서 國家의 中心部인 漢城이 戰鬪의 縱深에 위치하게 되었고 殘餘지휘부가 한강 침공의 沮止와 마땅한 다른 도읍지를 마련해야 하는 二重의 고충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국가 중추부인 수도 漢城에 전선이 형성되었는데, 公州에서 고구려군의 침공저지 작전을 지휘한다는 것은 徒步 三~四日의 장거리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 도읍지 公州가 都邑地로서의 지리적 여건이 百濟의 다른 都邑地보다 不利하게 보인다.

따라서 筆者는 百濟가 對高句麗 戰爭의 마무리와 新都邑의 定都를 하

기爲한 어떤 前方戰線司令部나 또는 前進基地가 存在하고 있지 않음에 對하여 의문점을 갖게 된다.

三國史記의 記錄을 參考하여 보면 高句麗의 百濟 侵略 性格이 「치고 내빼는」 유격전 성격의 전쟁임을 다분히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高句麗가 百濟를 침공한 후에도 百濟에서 漢江流域의 記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또한 한강유역을 잃었다는 百濟側 기록이나 한강을 차지했다는 高句麗, 新羅의 記錄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史料의 검토에 있어 史料自體의 史料性을 尊重할 必要가 있지 史料를 검토하는 立場에서 撰者의 立場을 推定하여 어떤 結論이나 推論을 내리려는 것은 알맞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高句麗 文咨明王 十六年 百濟武寧王 七年(五〇七) 多月條의 內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遣將軍高老與秣鞫謀愆攻百濟漢城進屯於橫岳下百濟出師逆戰乃退』 여기서 분명히 漢城은 百濟의 영토이며 橫岳下에서 百濟와 戰爭을 치렀다는 말인데 橫岳 또한 百濟初期부터 登場하는 地名이다.

따라서 三國史記의 내용으로 보면 將帥王의 百濟 侵略以後에도 最少 한 武寧王代까지 漢江流域은 百濟의 所有로 봄이 타당하다.

장수왕 침공 이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개로왕 二十一年 장수왕이 친히 침입해와 백제의 왕성을 파하고 왕을 죽이고 남녀 八,〇〇〇명을 포로하여 돌아갔는데 문주왕이 신라의 군사 一만명을 이끌고 漢城에 돌아오니 父王이 돌아가 왕위에 즉위하였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기 때문에 한강유역의 여러 지명이 공주시대의 백제 기록에 등장하며 ④ 漢山城 또한 登場할 수 있는 것이다.

一說의 주장대로 百濟가 상실된 영토의 지명을 百濟 新都인 公州부근으로 옮겨 놓았다 할지라도 百濟 自體에 어떤 커다란 意味를 줄 수 없을 것이며 다른 면에서 三國時代의 戰爭에 있어 高句麗가 漢江流域을

꼭 필요한 領土 확보의 도의 침공인지, 또는 人的 物的 資源의 확보^⑥를 위한 한강유역의 침공인지를 判斷해야 할 것이다.

한편 高句麗의 立場에서 본다면 百濟로부터 必要한 人的, 物的 資源을 獲得하였고 百濟의 國力을 消盡시킨 민족할만한 結果를 얻었으나 漢江 流域을 所有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防衛 부담의 加重과, 百濟地域 住民으로부터 反抗의 위험 부담, 그리고 百濟의 어떤 형태로의 反擊 등이 가져올 위험 부담이나, 防禦線의 확대가 加重됨으로써 軍事방위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국가 전체의 국방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漢江 流域은 반드시 所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百濟는 國家 中樞部의 上실이 國家 正統성과 直結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漢江 流域을 脫환할 必要가 있었기에 百濟의 漢江 地域의 恢復에 必死의 餘力을 投入했을 것이다.

따라 漢江 流域에 對한 高句麗의 軍事政策과 百濟의 故土 恢復政策이 對立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對立속에서의 相通點이 百濟가 漢江 流域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稷山 都邑說의 意味

百濟의 稷山 都邑說의 原因을 提供하는 것은 地名「蛇山」과「慰禮城」에 있다고 생각된다.

慰禮城의 位置에 관하여 三國史記에는 未詳으로 나와 있고 三國遺事에는 王歷條^⑥에「東明王의 세째 아들(혹 둘째 아들)이 癸卯年에 即位하였으며 在位는 四十五年이다. 慰禮城에 都邑하였는데 혹은 蛇州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稷山이다」라 한 이후 高麗史 地理誌 朝鮮時代 諸書인「世宗實錄 地理誌」「東國輿地勝覽」「東國文獻備考」「稷山縣誌」 및 輿地 圖書」에 이르기까지 天安稷山이 百濟初期都邑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朝鮮後期 우리 나라 最初의 正確한 地圖인 大東輿地圖와 그 解說書의 性格을 가진 大東地誌를 편찬한 古山子는 慰禮城의 位置를 示술^⑦「惠化門外」로 말하고 있다. 百濟의 建國以後 初期 都邑址 移動 거리가 現

漢江을 中心으로 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史料에 보이고 있으므로 최소한 高句麗 南侵으로 인한 公州 遷都까지 百濟는 建國後 倅 漢江 流域의 百濟의 中樞都였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最近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이란 冊이 出版以後 天安地域의 鄉土史 研究家들 중 몇 분이 百濟 初期 都邑址가 天安地方에 틀림없이 存在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前記 글은 모두 天安 稷山(現 北面 龍雲里)에

① 慰禮城이 現存하고 있으며

② 慰禮城에 百濟의 建韓傳說이 傳하고 있다는 事實을 들고 있다.

前記 慰禮城과 關聯하여 재미있는 것은 三國史記 高句麗本記 瑠璃王條 二十二年條에「十月 王이 國內로 遷都하고「慰禮巖城」을 築造하였다」 또는 瑠璃王 二十一年條에 三月에 郊豚을 놓쳐 버렸으므로 王은 犧牲을 담당하는 薛支에 命하여 이를 쫓아 붙잡게 하였는데 國那那那那에서 찾았는데 國內사람들의 집에서 이를 잡아 기르고 있었다」 以上에서 慰那那岩「慰那岩城」은 百濟初期都邑址「慰禮城」과 說音이 너무 近似하다는 事實이다. 그런데 前記한 바 있는 大東地誌 廣州條府에「慰禮는 당사 方 言으로 부릇, 우리, 即「圍哩」 慰禮는 비슷한 音으로「樹柵土築以作匡郭 謂之慰禮也」하여「土築木柵」의 郭 即 城郭이 둘러있는 곳을 慰禮라 불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論理라 생각되며 高句麗의 國內에 慰那那岩城을 築造하였다는 慰那那岩城 또한 이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天安 稷山 慰禮城은「城郭」의 意味로써 慰禮城의 名稱이 現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다른 理由로 이곳이 百濟 初期 都邑으로의 慰禮城이라면 百濟 滅亡以後 몇차례의 地名變化時에 變更對象에서 어떻게 除外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問題를 提起할 수 있고 後述하겠지만 地理的으로 五〇〇m의 高地에 어떻게 首都를 마련할 수 있었겠는지 하는 問題點이 擡頭되고 있다.

특히 이 城에 오르면 周邊의 여러 城과 連結關係가 車嶺山脈을 通한 連結만이 可能하며 稷山城山(一名 蛇山城)과는 連結이 不可能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蛇山、蛇川이라 불리워지는 稷山の 古·地名에 對하여 살펴 보면 三國史記는 「景德王因之今稷山白城郡領縣」이라 한 以後 諸史書의 表記가 一定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大略 整理하면

百濟時代：蛇山

高句麗(?)：蛇山(?)

統一新羅：稷山(白城郡領縣)

高麗：稷山

朝鮮：稷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初期 地名「蛇山」이 問題의 초점을 이루는데 三國史記 百濟本記에 蛇山이란 地名이 보이고 있다. 蓋鹵王 二十一年條 高句麗 南下 이후 百濟王의 죽음을 기록하고 高句麗 僧侶 道琳의 잔첩활동中 「혹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 宮室과 閣臺樹를 짓되 莊嚴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父王의 해골을 묻고 江邊에 連하여 「柵」을 만드는데 蛇城의 東쪽부터 崇山의 北쪽에 이르렀다」……云云과 責稽王 元年條에 慰禮城 阿且城、蛇城의 修築記錄이 보이고 있어 蛇城과 蛇城이 同一한 발음과 略字關係로 인하여 혼동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다. 卽 首都의 蛇城과 稷山의 蛇山이 發音上 동일한데 首都 蛇山은 百濟 초기 도읍지의 일부로서 存在하였기 때문에 百濟 滅亡後 地名이 再改編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稷山 蛇城은 한 地名으로 再改編時 稷山의 名稱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후 高麗 後期諸書의 整備과정에서 稷山の 古地名이 蛇山、蛇城이란 地名이 殘存하므로 百濟의 建國說話를 여기에 接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추정은 稷山에 百濟 建國과 關聯된 諸 史蹟이 朝鮮時代に 비로 소 稷山에 施設되고 있다는 것이다.

朝鮮王朝實錄、宣祖 三十七年 六月 癸卯에 「忠淸監司 柳根淸 修建·百濟·始祖·溫祚·墓於稷山地、上從之」라 하는가.

世宗實錄地理誌 百濟·始祖·溫祚·王·廟·在縣東北五里、今上十一年、己酉七日始立廟春秋傳香祝致祭」等은 蛇山의 地名에 百濟 建國의 傳說을 接合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天安 地域의 遺蹟

稷山 慰禮城의 百濟 郡邑說과 關聯하여 天安이 갖고 있는 地理的 與件이 三國時代 以後 羅末 麗初 高麗의 對後 百濟 戰爭과 有關한 遺蹟 및 傳說이 傳하고 있다. 또한 朝鮮時代 들어와서도 溫泉地 溫陽을 通過하는 重要한 通路上에 位置하여 諸王과 關聯된 說話를 傳하고 있어 百濟、高麗、朝鮮의 諸說話가 뒤엉켜 있어 史實보다 많은 傳說들이 傳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 傳說、遺蹟들을 時代別로 區分하여 敘述하고자 한다. 먼저 百濟와 關聯된 內容을 보면、

○素那^⑧

「素那 白城郡 蛇山人也 其父次那 膂力過人身輕且捷 傍山與百濟相錯 故互相寇擊無虛月 沈那每出戰 所向無堅陣 仁平中 白城郡出典 往抄百濟邊 邑 百濟出精兵急擊之 我士卒亂退 沈那獨立拔劍 怒目上叱斬殺數十餘人 賊懼不敢當 遂引兵而走 百濟人 指沈那 日新羅飛將因相謂曰 沈那尚生 莫近白府。：素那妻加林那 良家女子……云云。」

이 내용은 沈那의 父親에 關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稷山地方이 羅濟의 國境이 相錯되었다는 事實과 白城即安城은 이미 完全히 新羅의 勢力下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事實과 그리고 이 時期가 善德女王의 仁平年間(六三四~六四七)임을 말하고 있다. 沈那는 蛇山縣 出身으로 新羅의 邊將으로 活躍한 記錄이 있으나 原來는 百濟人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沈那의 아들 那의 妻가 百濟 加林郡(扶餘郡林川)의 良家女子였다는 事實에 依하여 짐작할 수 있다.

勿論 이 記錄의 內容은 百濟의 南下時期와 많은 時差를 주고 있지만 車嶺山脈을 東西로 하여 百濟와 新羅가 隣接되고 있어 高句麗 南下후 錦江流域으로 遷都後에도 쉽게 新羅와의 協調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군단(軍丹) : 天原郡 北面 雲龍里, 「雲龍里에서 가장 큰 마을로 百濟時代 軍代가 駐屯하였기 때문에 軍丹이라 名하였다함.

○ 扶蘇門嶺(부소문이고개, 서낭당고개, 보스머니고개) : 北面 龍雲里에서 笠場面 良岱里로 넘어가는 고개, 百濟때 온조왕(溫祚王)이 慰城城에 都邑하였을 때 門을 이곳에 세웠다함.

○ 구시랑이(九侍郎洞, 구시랑, 구실항(笠場面 侍壯里) : 도장골 西쪽의 골짜기 百濟때 侍郎 아홉사람이 이곳에 살았다함 또는 百濟때 救實 鄉이 있었다함. 그런데 이 地名은 「도장골」과 범우래(시랑 옛날 범이 울었다함)의 地名이 합하여 侍壯里의 地名이 由來하여 地名이 結定된以後에 傳說이 發生된 것으로 追定되고 있다.

○ 城山城과(蛇山城?) (稷山面 郡東里와 成歎邑 梅舟里) : 높이 一七六 m의 野山 與地勝覽에 「土築二千九百四十八尺、類十三尺、內有一井今廢」山城은 두개의 山城即 데미식山城과 포곡형山城이 復合된 形式으로 築造는 主峰에 자리잡은 山頂의 데미식山城이 먼저 築造되었다.

이것은 높은 地形을 제외하고 낮은 地形부터 먼저 築城할 理由가 없고 다른 面으로는 두 城壁의 접속부분의 상태를 살펴보면 포곡형 山城이 후일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山頂의 二重데미식 築城線을 가로지르고 포곡형山城이 축조되었기 때문에 후자가 늦게 축조되었을 것으로 의심스럽게 推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構造上의 先後關係에 對한 究明도 역시 最終的으로 考古學的 發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라 하여 二重의 城壁體에 對한 先後關係는 외면적 관찰에 이어 인젠가는 확실한 知見을 발굴에 依해 밝혀낼 것을 기대하면서 一次 발굴한 調査者는 어떤 結論을 내지 않고 城壁의 圖面(東壁、北城 實測圖、東壁斷面圖、外郭東壁斷面圖、山頂데미식 東壁石築、土器 實測

圖、石器、土器實測圖)과 遺物(기와 文樣拓影)의 拓影과 遺物等의 寫眞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瓦片과 土器의 遺物들로 보인 百濟건축 初期의 遺物로 推定될 수 있는 可能性에 의심이 가고 있다.

○ 月峰山城(安市市 龍谷洞) ⑪
現 安市市 體育公園으로 造成하는 과정에서 山頂上部에 자리잡은 城壁은 거의 파손되었고 築城線은 산책路를 따른다는 과정에서 原形을 잃고 있다.

現行 城壁은 土築으로 削土되었으나 現外高가 一、五 m 정도이다. 城은 전체적으로 蹄形이고 城周는 三〇〇 m 내외이다.

이 山城의 西北方에는 月峰、鳳接山城이 位置하고 東北方에는 稷山蛇山城이 그리고 東으로는 黑城山城과 連結되고 있다. 城의 內部에는 비교적 平坦한 地形이 展開되어 있고 城 內部에서 百濟時代 格子文 硬質土器片과 平瓦片이 發見되고 있다.

○ 月峰山城(安市市 佛堂洞) ⑫
海拔 一三〇 m의 野山 山頂上部에 內托의 土築된 데미식 山城이다. 外高는 約 三 m 정도이고 城周는 二六〇 m이며 原形은 비교적 잘 保存되고 있다. 城內에는 硬質土器片 몇 점을 수습할 수 있을 뿐이다.

○ 鳳接山城(安市市 白石洞) ⑬
海拔 一五八 m 지점의 土築 데미식山城으로 城周 約 二五〇이며 東、南壁이 〇三 m 정도이며 약간의 土器片을 수습할 수 있을 뿐이다.

○ 龍臥山城(稷山面 馬井里) ⑭
稷山과 牙山 陰峰面 사이에 位置하며 海拔 二八〇 m의 山頂에 位置한 城周 約 三二〇 m 이고 東北隅의 城壁高는 約 二、五 m 이다. 城內部에서 는 百濟時代 것으로 추정되는 土器片 몇 점을 수습할 수 있다.

○ 斗南里山城(豐歲面 斗南里) ⑮
斗南里 野山에 位置하여 二〇〇 m의 城周의 데미식 土築山城이다. 自然斜面을 利用하여 築城하였으나 城壁이 現高는 約 一 m 정도이며 城內

部에서 몇점의 土器이 수습되었다.

○細城山城(山南里 花城里)¹⁶⁾

海拔二二〇m의 高地에 네모꼴山城으로된 石築山城이다. 北高南底의 山の 南面을 利用하여 築成하였으며 城周二八〇m이며 높이는 二m 內外이다. 城內部에서는 三國時代의 前記蛇山城에서 보이는 硬質 牛角形 손잡이片과 格子門 土器片이 無文瓦片과 함께 發見되고 있다. 邑誌에 의하면 「三國時代 農城으로 記錄되고 있고 東學 運動期에 激戰地」로 되어 있다.

○望京山城(修身面 百子里)¹⁷⁾

海拔三八〇m의 山頂에 位置하여 城周約 六六〇m의 네모꼴山城이다. 城外高는 約 一五m이며 西北便으로 黑城山城과 前記 細城山城이 可視 距리에 位置한다. 內部の 遺物은 土器片 몇 점을 수습할 수 있을 뿐이다 時代를 分別할 資料는 못되었다.

○徐林里山城(東面 壽南里)¹⁸⁾

海拔三三〇m의 네모꼴山城 土石 混築의 城周 四五〇m의 타원형山城이다.

城壁高約 四m 程度이나 土築部分과 石築部分의 區別이 확실하여 石 築部分은 後代에 補完한 것으로 생각된다. 東學軍과 日本軍의 戰鬥 事項을 傳하고 있어 이때 補修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城 內部에 灰青色 硬質土器片, 朝鮮代의 瓦片, 礎器片等이 發見되고 있어 三國時代 以來로 繼續使用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木城의 西北方으로 銅城山城, 鵲城山城과 連接하고 있어 天安—鎭川間의 通路邊에 位置하고 있어 關心이 가고 있다.

○廣德里山城(東面 廣德里)¹⁹⁾

廣德里 絶골 뒷산에 位置한 土石混築의 周三〇〇m의 네모꼴山城이다. 山頂에서 南으로 徐林山城, 西北으로 鵲城山城 西로 銅城山城이 可視 距리에 있고 內部에서 格子 土器片瓦片等이 수습되었다. 이山城은 車峰山脈의 本流에 位置하고 있어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花溪里 土城(東面 花溪里)²⁰⁾

並川桃原里와의 경계에 位置하여 山頂土築의 네모꼴山城이다. 城周 六〇〇m 정도이고 城壁高約 二十m내의 現存한다. 城內엔 多數의 百濟時代 土器片만이 發見되고 있어 百濟時 山城으로 推定되고 있다. 本城에서 銅城山城, 徐林山城等과 連結되고 있다.

○銅城山城(普川面 桃源里)²¹⁾

二三七m의 高地에 山頂네모꼴山城이다. 城周 五〇〇m이며 城高一, 七~二m 정도의 土石混築의 方法으로 築造하였다. 城內部的의 境까지 三國時代 土器片들이 發見되었고 百濟 時代 것으로 推定된다. 本山城의 南面에 百濟時代(?)古墳群으로 推定되는 古墳群이 現存하고 있다.

◎後三國 相爭地로의 天安

高麗 太祖와 後百濟 甄萱의 오랜 戰爭은 이곳 天安이 韓半島河南交通의 要地로써 相爭地가 됨은 당연한 歸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天安 附近에는 高麗 太祖와 聯結된 史蹟이 傳해져 내려와 過去 高句麗의 南下와 관계 깊은 것처럼 논란을 가져오고 후백제 견훤의 진출이 百濟의 史實과 혼동을 가져오는 등 이 지역의 史料에서도 논란을 加重시키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 羅末 麗初의 傳說 및 史料와 關係된 重要한 것을 찾아보면

○王字山(天安市 東北 六km, 鎭山)²²⁾

留糧洞과 安棲洞 境界의 二五三m의 王字모양의 山, 高麗 太祖初 術師 倪方이 「天安이 三國의 中心地가 되고 五龍年珠地가 되니 三千戶 邑을 두어 練兵하면 後百濟가 自然 降服하라라」하여 太祖山에 올라 두루 살피고 天安府를 두었는데 王字山에 駐軍하게 된 것은 尹繼芳의 奏言에 「五龍爭珠之勢」라 하여 城壘를 쌓고 觀兵하면서 王字城이라 하였는데 당시 屯營址를 「鼓庭」이라 하고 禮內에는 「太祖廟」가 있었다.

○聖居山城²³⁾

高麗 太祖가 愁歇院에서 休息하였을 때 東使 山上에 五色雲이 있음을

보고 神이 있음을 알고 祭祀를 올리는 同時에 山名도 聖居山이라 하였
다。朝鮮의 太祖와 世宗도 溫陽에 가실 때에 祭祀를 올렸다 傳함。

○ 太祖山(北面銀之里)

太祖山은 鵝城山과 南北으로 連接된 孤峰、圓錐形으로 空中에 솟아 있
다。이 山頂에는 朝鮮時代 淸白吏 朴文秀墓와 銀石寺가 있다。

○ 군량들(軍糧들, 軍坪), (東南 東山里)²⁴

○ 승적골(勝賊一), (東里 長松里)²⁵

○ 留王골(留王二), (木川面, 德田里)²⁶

高麗太祖 王建이 太祖山에 陣을 치고 이곳에 머물렀음, 또는 「百濟始
祖가 慰禮城에 都邑하고 여름이면 勸農을 爲하여 이곳에 머물렀음」 등
의 傳言이 있으나 時期的으로 前者에 屬함。

○ 승적골(勝賊一) 木川面 石田里²⁷

○ 군량골(軍糧窟) 成歎 粟金里²⁸

○ 愁歇院址(稷山面 愁歇里)²⁹

○ 군량골(軍糧谷) (木川, 云田里)³⁰

○ 天興寺址(聖居面 天聖里)³¹

現在 幢竿支柱(總高 五四〇cm) 王層石塔(總高 五二七cm, 下臺石 二四
〇×三三cm)이 廢寺址에 있으며 天興寺鐘(國立博物館)이 있다。

특히 天興寺 銅鐘은 高麗時代 鐘中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鐘의 하나
이며 우리 傳統 樣式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유곽 아래 位牌形의 구
획안에 「聖居山天興寺鐘銘統和二十八年庚戌二月日」이라 鑄鐘年代를 記
錄하고 있어 顯宗一年(一〇一〇)임을 알 수 있다。本天興寺가 顯宗以前
建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幢竿支柱 後側에 記錄된 「天漢元年元成門立」
이라 쓰여진 「天漢」은 五代의 「蜀」의 年號로 西紀 九一七년에 해당되어
天安이 만들어지기 以前에 天興寺가 建立되었음을 推定할 수 있다。

○ 弘慶寺址(稷山面 大弘里)³²

弘慶寺가 創建되기는 高麗顯宗 七年부터 同王十二年까지 七年 동안에
堂、殿、廡、門等 二百餘間을 建立한 것이다。처음 寺刹을 建立한 것은

顯宗王考 安宗孝懿王侑의 大天命에 歸依하고 특히 「法華經」의 妙說을 보
고 깊이 感動되어 願刹을 扞立하려다 薨去 顯宗이 父王의 遺志를 받고
完成시킨 것이다。그래서 寺名에 奉光이란 二字를 붙였다。現在의 寺刹
은 高麗 明宗七年 亡伊等の 亂에 불에 탔던 것으로 記錄되고 있다。

이처럼 天安地域은 高麗初에 太祖의 後百濟 攻略에 있어 重要한 作
戰基地로 太祖十三 己亥에 大丞 弟弓을 天安府都督府使로 삼고 있었
다。사실 天安은 湯井(溫陽) 大麓(木川) 蛇山의 땅을 分割하여 天安府를
만들었다。天安이란 音意가 高麗 太祖의 三國 統一戰爭과 有關한 意味
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삼국사기 甄萱條에³³ 甄萱이 高麗에 歸附한 후 그 아들 神劍을 平定
하고자 할 때 太祖는 六月에 太子武와 將軍述希를 과견하여 步騎兵 一
萬名을 거느리고 天安府로 향하게 하였고 그해 九月 太祖 自身은 三萬
의 군사를 이끌고 天安府에 이르러 군사를 모아 一善郡을 攻略 후삼국
행일의 마무리 전쟁의 基地 또한 天安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天安地域은 百濟의 遺蹟과 高麗時代의 遺蹟들이 混在하여
있고 여기에 따른 傳說, 史籍들이 중복, 중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은양
의 은천과 관련있게 朝鮮時代에도 國王의 來往 길목으로 이에 따른 傳
說等이 여기에 다시 겹쳐 史實에 가까운 問題를 解明하는데 어려움이 따
르고 있다。

地理的 考察

論議의 對象이 되는 漢江流域에서 錦江流域은 韓半島의 中樞 核心部
로 우리나라 歷史以來로 各國의 爭奪의 主對象地였다。

이 地域은 車嶺山脈이 忠北、京畿의 道境을 거쳐 京畿道 廣州、龍仁、
安城을 지나 忠南에 들어와 天安、公州北部 靑陽—保寧을 지나 扶餘 舒
川에 이르러서 丘陵性 山地로 殘存한다고 볼 수 있다。

漢江流域과 錦江流域을 區割하는 이 車嶺山脈은 江原道 五臺山에서
漢江까지는 雉岳山、南臺嶺、白雲山等 一、〇〇〇m가 넘는 高峰이 솟

아있으나 漢江을 지나면서 平均 五〇〇m 內외의 낮은 高度를 유지하며 高峰이라야 天安廣德山(六九〇m) 七甲山(五六九m) 鳥棲山(七九一m) 程度이다.

특히 이 山脈은 天安地方에 이르러 鞍部를 이루어 現在의 南北 交通 主要 交通路가 모두 이 地域을 通過하고 있다.

특히 車嶺山脈은 寒月平均 영하 3도의 等溫線과 一致하여 우리나라의 氣溫區分 多帶, 溫帶를 區分짓고 있어 興味롭다.

古山子의 大東與地圖(註七)를 살펴 보면 百濟의 初期 都邑地로 보이는 廣州, 서울 附近과 中期 都邑인 公州와의 可能 交通路를 크게 두가지로 推定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現在의 京釜線路를 따라 南下하여 天安에서 車嶺山脈을 橫斷하고 錦江을 건너 公州에 이르는 方法과 또 다른 하나는 圖面에서 보 다시 廣州附近에서 車嶺山脈을 따라 南下하는 山地交通을 想定해 볼 수 있다. 前者의 陸路交通이 三國時代부터 使用되었는지에 關해서는 자신이 서지 않지만 高麗時代 이 通路가 使用되었으리란 推定은 弘慶寺 碑碣에 보이는 廣緣通化院의 客館, 龍仁 虎仁城의 古蹟等을 미루어 보면 可能하다.

그러나 이 陸路는 高麗以來 朝鮮 後期까지 韓半島 南北을 連結하는 幹線路인 것만은 틀림없다.

古山子의 大東地誌에 依하면 서울 漢江 洞雀津을 건너 果川, 水原, 振威, 稷山, 天安, 錦江津—魯城을 連結하는 南至海南 八大路가 바로 이 通路를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개의 山岳通路를 살펴보면 서울 부근의 漢江에서(廣州) 靈長山, 文殊山 龍仁 香水山, 寶蓋山을 지나 窟岩山, 聖輪山, 九峯山, 白雲山 慰禮山, 聖居山 以上(天安 부근)에 이르고 다시 南下하면 甑山(全義), 高等山, 高臺山(公州)을 거쳐 錦江을 건너면 公州에 이른다.

이 山岳路에 크고 작은 城址들이 現存하고 있어(別表參照) 古代以來로 이 通路의 利用이 많았던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특히 興味로운 것은

別表

車嶺山脈上에 位置한 城址

廣川郡	南漢山城	廣川郡	石	與地勝覽
	二城山城	"		
龍仁郡	寶蓋山城			滿谷面 臟城里
	老姑城			駒城面 東栢里
	處仁城			南四面 衙谷里
安城郡	金光山城			金光面 金光里
	瑞雲山城			瑞雲面 靑龍里
	金山山城			一竹面 金山里
	竹州山城			二竹面 梅山里
天原郡	社禮城, 山頂, 土石	北面雲龍里, 與地勝覽井一		
	聖居山城, 山頂, 石	聖居, 木川面		
	黑城山城, 山頂, 石	天安市木, 川		與地勝覽池
	徐林山城, 山頂, 土	東面		
	廣德山城, 山頂, 土	東面		
	銅城(農城) 土石	三韓時代傳說		
	細城山城, 土石	城南, 三韓時代傳說		
公川郡	蕪城山城 牛城, 寺谷, 石			
	新豐山城 新豐山亭, 石	與地勝覽		
	栗亭山城 儀堂			
	禿峴城 儀堂			
沙峴城	正安廣亭, 土石			

은 一〇여 차례의 踏查를 通하여 現場에서 調査된바 最近六, 二五事變時

이 車嶺山脈이 軍事移動의 通路와 住民들의 避難처를 提供하였다는 事實이다.

高句麗의 南侵時 百濟의 首都로 推定된 廣州(京畿)와 最近 百濟 初期 都邑說로 學論된 稷山慰禮城, 그리고 錦江時代의 幕을 여는 公州는 모두 車嶺山脈의 主脈에 位置하고 있어 百濟의 山城에 依存한 防禦戰略과 連結시켜 볼 때 看過할 수 없는 重要한 點으로 지적할 수 있다. 長壽王의 百濟攻略 以前 廣開土大王時의 百濟攻擊에 水軍 五萬을 投入하고 있다. ②⑥ 水軍의 移動路를 推定할 때 鴨綠江 하구에서 沿岸 항해를 통하여 漢江 流域으로 侵攻하였을 경우에도 百濟의 선택은 역시 이 山岳路를 利用한 對備策뿐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百濟의 築城 記錄이 他二國에 比하여 많은 것은 百濟의 軍事戰略의 主流가 山城을 中心으로 한 「거점방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圖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車嶺山脈을 통한 南下의 可能性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漢江 流域 都邑期의 公州에 對한 考慮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百濟 建國初期의 對馬韓과의 國境 關係에서 二차례의 熊津에 關한 記錄이 보일 뿐 ②⑦ 遷都記 以前 熊津 記錄이 全無한 狀態이다.

이것은 三國時代 百濟에서 遷都하기 爲한 事前作業과 關聯하여 王田, 狩獵等의 記錄으로 表現되고 있는 國家의 關心에 比較할 때는 엄청난 난차이를 가져 오고 있다. 따라서 百濟의 公州 都邑은 전혀 예상밖의 침공과 이에 따른 遷都인 것이 分明하다.

이것은 最近 六、二五戰爭時, 우리나라의 中樞部가 어떻게 對處하였는가를 상기하면 더욱 실감있게 알 수 있을 것이다. 共產軍의 南侵으로 因하여 豫定된 후보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大田, 大邱, 釜山等에 차례로 都邑을 옮긴바 있는데 古代 高句麗가 百濟에 猛攻을 加하여 首都가 함락되고 王이 미처 避難지 못한 어려운 상황일 때 百濟의 中樞部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무엇이었을까? 漢江邊의 國家 中央部를 포기하

고 南下를 해야 하는데 예비적 후보수도(首都)가 없다고 본다면 百濟의 지휘부는 對 高句麗侵入 沮止戰爭의 마무리와 새 首都를 定할 지휘부가 잠시 定住할 수 있는 都邑地性格의 마련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殘餘지휘부가 이렇듯 대책을 마련하고 完決지을 어떤 位置의 存在를 우려는 否定할 수는 없을 것이다.

前章에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百濟의 南遷까지 軍事的 事項을 되돌려 볼 때 高句麗의 速攻으로 百濟의 防衛에 問題點을 提起하였기 때문에 太子 文周에게 新羅에 援兵을 請하기 爲하여 新羅(慶州)에 갔다가 歸還하여 본즉 父王이 殺害되고 王都가 廢墟가 되었다고 보이고 있어 子 文周의 現場確認을 三國史記는 記錄하고 있다. ②⑧ 이것은 高句麗의 侵入에 對한 麗濟의 反擊으로 因하여 漢江을 中心으로 一時的인 麗濟의 戰線形成을 認定치 않을 수 없고 百濟의 反擊으로 因한 高句麗軍의 撤退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百濟는 高句麗 南下 沮止戰鬪를 수행하기 爲한 安定된 前方 基地가 必修的인 要件으로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이 前方基地 即 漢江戰線의 마무리 내지 前 首都의 脫환과 安定된 새 首都의 確定을 爲한 百濟의 對策은 과연 어떤 基地를 擇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筆者는 車嶺山脈 本流에 位置하고 있는 慰禮城(註 一八)을 考慮해 볼 수 있다. 이 慰禮城은 車嶺의 平均高度인 五〇〇m 以上の 高地에 位置하고 있고 典型的인 전투형 산성일 뿐이며 都邑址의 都城④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現地の 傳說이 對 高句麗 戰爭 및 「錦江」과 關聯있는 傳說이 現存하고 있어(註 一三) 百濟의 南遷過程의 事項을 사실로 傳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더우გი 이 山城에 「어떤 王이 三개월간 居住했다」는 것은 百濟의 當時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또 다른 面은 이 慰禮城의 位置가 車嶺山脈에서 木川, 鎭川, 報恩으

로 통하는 通路에 位置하여 史料에 依한 百濟에 對한 新羅의 協調가 용이한 지점에 位置하고 있다는 것도 이 山城의 歷史的 要件을 強化시키고 있다고 본다.

城址에 對한 考察

車嶺山脈이 安城(天安) 地高에 와서 鞍部를 이루어 鎭川으로 通하는 작은 通路를 만들고 다시 五〇〇高地 이상의 慰禮城, 聖居山을 연속이루고 聖居山, 廣德山 사이에 비교적 넓은 鞍部를 形成하여 湖南, 京釜大路를 通過시키고 있다.

이 山城은 東西約 四〇〇m, 南北最長 一五〇m이고 全體的으로 梯形을 이루고 있다. 城壁의 長이는 約 一, 二km이며 內部 面積은 二四〇m²이다.

城壁의 높이는 地形에 따라 一定치 않기 때문에 位置에 따라 다르지만 城壁上層部는 거의 水平을 이루고 있고 西便의 石築部의 一部는 原狀態와 가까운 것으로 推定되고 있는데 現高約 二, 五m이다.

山城은 山頂上部의 五〇〇m 等高線과 거의 一致하고 있으며 保存상태는 北쪽의 完만한 경사면의 과손 상대가 原形을 상실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原形을 유지하고 있다. 城內 中央 北部에는 龍淵 또는 溫祚우물이라 불리우는 二, 二×三m 규모의 우물이 現存하고 있으며 前章에서 말한 바 百濟의 王과, 高句麗와의 전쟁과 연관된 傳說이 傳해오고 있다.¹³⁾

이 우물은 윗부분을 二, 三단 정도의 階梯로 둘러 축조하고 있으며 現在에도 물의 湧出이 있어 利用할 수 있다. 근년에 우물 옆에 傳慰禮城이란 碑銘과 前記를 뒷면에 記錄한 一m 정도의 烏石碑石을 세워 놓고 있다.

이밖에 성안의 유구는 碑坐가 과손된 것으로 보이는 凹형 석재가 반과 되어 있을(九〇×九五cm)뿐이다. 城에서 볼 때 車嶺山脈의 北(安城瑞雲山城, 아래편)으로 聖居山城이 보이고 稷山, 蛇山城이 북쪽 아래

로 보이고 있다. 築城은 西쪽 聖居山城쪽의 五〇m 정도는 石築이며 나머지 모두는 積石心이 있는 土築으로 된 土石混築城이다. 城門址는 東北의 두편에 있는 것으로 推定되나 榘손이 심하여 크기의 정도는 未知이다.

城址 北쪽 계곡 아래 金堂庵이란 最近에 建立된 私設압자가 하나 있고 五〇代의 비구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살고 있다. 성내외에서 수습된 유물은 瓦片과 土器片이지만 三國時代는 物論 高麗 後期 또는 朝鮮初期의 것으로 推定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우물, 碑坐石破, 瓦片, 以外에는 이 城址를 判斷할 參考資料는 없다. 天安의 鄉土會와 一說에서 말하고 있는 城入口의 積石塚이라 한 것은 古墳으로 보기에 그 城郭의 구조, 위치, 築城樣式 등에서 많은 問題點을 갖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本 天安 慰禮城은 車嶺山脈 本流의 軍事的 防禦戰略의 한 부분으로 理解될 수 있다고 본다.

II, 結 論

이제까지 論議된 諸事項을 要約 整理함으로써 結論에 이르고자 한다. 一, 史料의 諒討에 있어서 지금까지 百濟가 高句麗의 기습 強攻에 漢江流域을 一方的으로 高句麗에 넘겨주고 公州 遷都를 斷行하였다는 見解는 三國史記 및 그以後의 史書地理書에 대한 재검토 結果 百濟는 故土 恢復을 위한 對 新羅 協調가 必要했고 이에 따라 漢江 戰線에 있어 攻防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二, 軍事地理的으로 漢江 流域 廣州 附近에서 錦江 公州流域으로 移動할 때 城址의 配置로 보아 軍事戰略의 경험에 미루어 이 地域의 中央을 貫通하는 車嶺山脈을 利用했을 可能性이 높다.

三, 現存의 天安 慰禮城은 車嶺山脈의 本流에 位置하며 本 城址에서 廣州附近, 公州까지의 거리가 단거리 이므로 한강전선의 마무리와 錦江流域의 遷都를 劃定하는 임시 指揮部의 居處로 利用하였음을 推定할 수 있을 뿐, 이 城의 地理的 의견, 위치 그리고 축성양식을 종합할 때 一部

에서 말하고 있는 百濟 都邑址로서의 제반 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四、本城址에 傳해지는 傳說이 百濟의 對 高句麗 戰爭과 公州 遷都와 聯關지을 수 있는 說話를 傳하고 있어 百濟의 中樞部가 漢江流域에서 錦江流域으로의 移動 過程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本慰禮城에 對한 諸 方法의 考察을 通하여 百濟가 漢江에서 錦江으로 遷都하는 과정에서 잠시 都邑地로 利用했음을 論證할 수 있다.

〔註〕

- ①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蓋幽王 二十一年 秋九月。
○ 同書, 高句麗本紀 第六 長壽王 六十三年 秋九月。
○ 同書, 新羅本本 第三 慈悲麻立干 十七年 秋七月。
○ 同書, 百濟紀紀 第四 文周王 元年。
○ 其他參考 資料로 三國遺事 卷第一 王座 第一과 同書 紀異 第三 南扶餘 條 百濟。
- ② 日本書記 卷一四 雄略天皇 二十年 條。
- ③ 이 부분都 百濟 漢江流域의 상실에 對하여 李丙燾는 「韓國史」古代編에서 계속 南進을 추정하고 있는데 比하여 丁若鏞과 安正福은 「我邦○域考」와 「東史綱目」은 高句麗軍의 搬軍을 추정하고 있다.
- ④ 東城王 三年 馬首城
四年 漢山城
五年 漢山城
二十一年 城山人
武寧王 七年 攻漢城
二十一年 徵漢北州郡民
: 自漢城
- ⑤ 이 時期의 삼국간의 戰爭 내용을 살펴보면 戰爭이 領土 確保를 하기 위한 것과 人的 物的 資源의 확보를 위한 전쟁형태가 흔히 진행되었고 目的이 달성되면 本國으로 복귀하는 성격의 전쟁기록이 삼국사기에 여러차례 보이기 있다.
- ⑥ 三國遺事 王曆第一, 百濟第一 溫祚王。
- ⑦ 大東地誌 漢城府 沿革條。
- ⑧ 三國史記 烈傳七 素那。
- ⑨ 東國輿地勝覽 卷一六 稷山 古跡。

⑩ 百濟研究一六 p.101 稷山城發掘調査 中間報告書, 一九八五, 一二, 三〇,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⑪~⑬ 忠南地方의 文化遺跡 天安, 天原郡。 百濟文化開發研究院, 一九八六, 一一, 三二。

⑭ 東國輿地勝覽 卷一五, 天安 山川條。
⑮ 大東地誌 p.136 稷山 山川。 한국지명총람, 충남편 상권, 천안, 천원, 한글학회, 一九七四。

⑯ 東國輿地勝覽, 稷山 古蹟, 愁歇院 在西七里高麗金之俗詩……云云。

⑰ 大東地誌 稷山 山水條 聖居山…… 天與寺在山之北支國初廢有高鹿時所堅鐵櫛凡二十四節團四把一節爲十尺上下如一上覆寶蓋以銀爲可數百斤遠望之直衝雲齊。

⑱ 東國輿地勝覽 第十六 稷山 驛院 弘慶院條
○ 大東地誌 稷山 典故 「高麗明宗七年公州賊亡伊等焚弘慶院」
○ 高麗史 世家 第一九 明宗七年 四月 辛亥。

⑲ 三國史記 列傳 「甄萱」
高麗史, 世家一, 太祖十三年 己亥。

⑳ 朝鮮金石總覽 上 p.260, 朝鮮總監府
忠清南道誌 下 p.783, 忠清南道 一九七九。

㉑ 大東地誌 里程 p.539-40, 漢陽大口學研究。
限廣開土王碑文 參考。

㉒ 三國史記 百濟 溫祚王 一三年…… 南限能州同上 二四年…… 築態川柵…… 일부에서는 高句麗의 공격에 대한 백제의 일방적 괴멸을 말하고 있으나 전쟁의 過程에서 종전까지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㉓ 徐居正, 「佛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 p.64, 知文社, 一九八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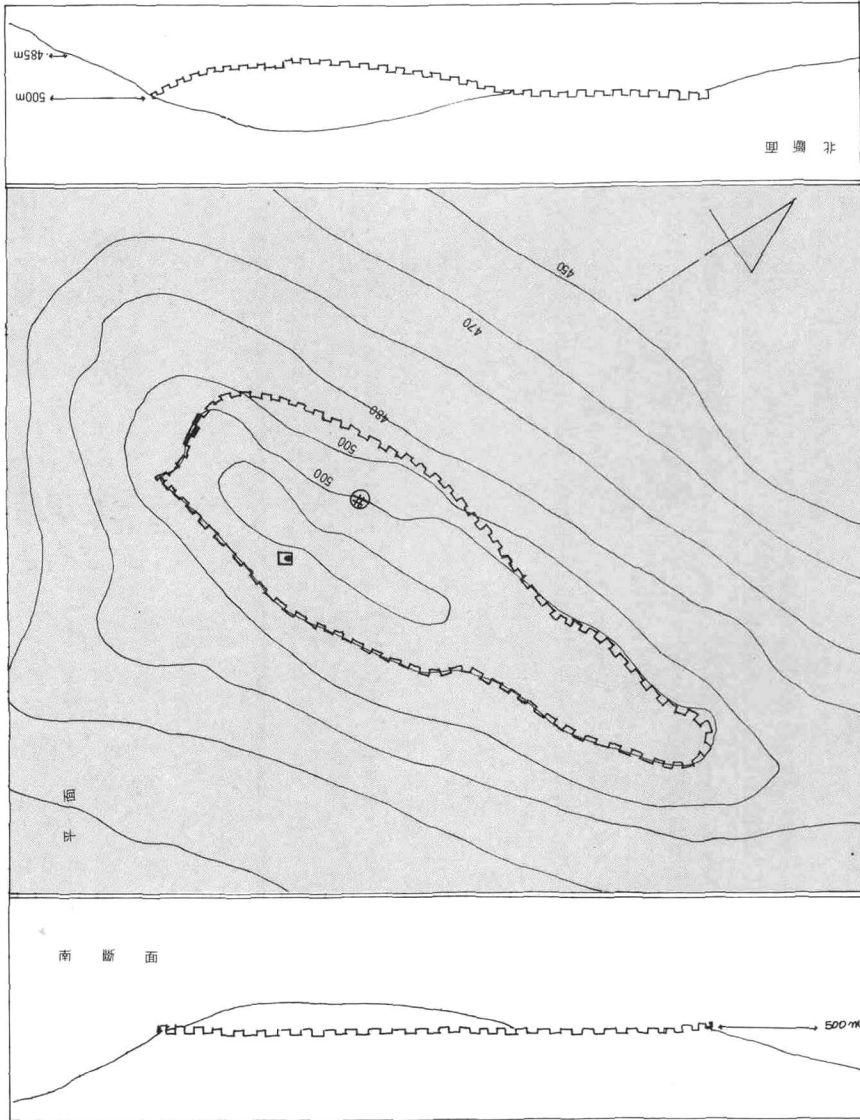
㉔ 傳說, 한국지명총람 四, 충남下, 위례성 한글학회, 一九七四。
이 城의 性格에 대하여 申澈호는 朝鮮上古史에서 洪思俊은 忠南道誌에서 都邑址로의 不可能을 이미 간략하게 말한바 있다。



車嶺山脈과 慰禮城, 聖居山城



慰禮城內的 石造遺物 (碑坐?)



 石築
 土築

笠場 慰禮城 略圖